

문 47: 제 1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47: 제 1 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 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 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0-21, 25; 시편 81:11, 14:1

추가질문 1: 제 1 계명은 크게 두가지로 무엇을 금하는 것인가?

추가질문 2: 제 1 계명은 누구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3: 제 1 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느 누구와도 나뉘갓으시기를 원치 않으신 것인가?

추가질문 4: 나는 나의 모든 사랑을 주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주 하나님 외에 딴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게 바쳐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설명:

제 1 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한다. 이미 나눈바 있지만 제 1 계명은 10 계명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계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제 1 계명은 두가지를 금하고 있다. 첫째,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 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둘째,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제 1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신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신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신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할때에 죄가 되기 때문이다. 제 1 계명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 하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할때에 자동적으로 경배를 드리고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신의 자격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1 계명은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신이 되신다라는 것은 참신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이 다른 어떤 참신이 아닌 것이나 자들에게 드러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되 어느 한 부문이라도 우리의 하나님외에 다른 것이나 자들에게 드러진다면 제 1 계명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는 하나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될 경배와 영광중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요구하거나 받는다면 제 1 계명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다.

제 1 계명은 하나님외에 다른 주인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나의 마음을 나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부할 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치 못하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제 1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뉘어질수가 없다. 제 1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시편 81:11 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있다. 문제는 “내 백성”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있는데 제 1 계명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참신으로만 인정하는데서 그쳐서는 않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제 1 계명을 금하고 있다.

시편 14:1 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만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1 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금지하고 있다. 제 1 계명은 우리는 함부러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늘 점검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제 1 계명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것을 강조하고 있다.